

금요 양성 2026년 5월 29일

단위형제회와 나누시오

재속프란치스칸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 - 세례부터 서약까지 (3부 마지막)

[개인 양성을 위해서는 각 부분을 따로 다루고, 영속 양성을 위해서는 3부 전체를 같이 제시하여 토론할 때 유용할 것이다]

FUN 지침서에 있는 Anne Mulqueen의 재속프란치스칸의 정체성과 Lester Bach, OFM의 프란치스칸 여정을 참고하시오.

프란치스코 가족의 세 갈래 분파의 특징들은 모두 우리의 세라핌적 사부이신 성 프란치스코의 카리스마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그 세 가족의 영성의 강조점은 각각 다르다. 1회 작은형제회는 작음에 핵심을 두고 있고, 2회 가난한 글라라회는 가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3회 재속프란치스코회는 참회와 회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재속프란치스코회의 뿌리는 13세기에 있었던 참회 운동에서 비롯되었다. 성 프란시스가 그의 회개 과정에서 참회 수도회에 참여했었다고 생각이 된다.

이 참회 운동이 요구했던 것:

- 끊임없는 회개 (메타노이아)
- 완전한 내적 변화 (회칙 제 7조 참조)
- 자기 중심적인 것으로 부터 돌아서기
-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서서 일치하기
- 교회와 하느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모든 것을 사랑하고 섬기기

“프란치스칸 사상에서 참회라는 용어는 메타노이아라는 성서적 의미와 동일한데, 하느님을 향한 친밀한 마음의 전환, 생동적인 태도, 지속적인 존재의 상태로 이해된다. 참회는 참회 행위를 하는 문제가 아니라 참회 상태에 머무는 것을 말한다.” (Fr. Lino Temperini, TOR—Penitential Spirituality in the Franciscan Sources, p. 41)

- 성 프란시스의 정신에 따라 복음을 살면서 지속적으로 회개하고 (메타노이아), 단순, 겸손, 작음의 삶을 산다.
- 모든 사람들과 모든 피조물의 형제 자매로서 산다.
- 가난하고 십자가에 못박히신 그리스도를 따른다.
-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삶을 살며 교회 생활과 미션안에서 나눈다. 대화의 태도로 교회에 충성하며 교회 사목자들과 협력 한다.
- 성부의 사랑안에서 나눈다.

- 평화의 도구가 된다.
- 개인, 공동, 전례 기도의 삶을 산다.
- 기쁨의 삶을 산다.
- 재속성의 영성을 지니다.
- 평신도 사도직에 참여하고 덜 운이 좋은 사람들에게 봉사한다.
- 성부께로 가는 길에서 순례자가 된다.
- 성령의 활동에 열려 있다.

토론과 저널 쓰기를 위한 질문

- + 재속프란치스칸으로서의 정체성이 세례때의 약속을 어떻게 강화하는가?
- + 위에 거론된 점들 중 당신이 따르기에 힘들게 느껴지는 것은 어느 것인가?
- + 회칙의 제 2장을 다시 읽고 어느 조항이 위에서 거론된 점들을 반영하고 있는지 알아보시오.